

넥슨 “전 세계에서 인정 받고, 긍정적 영향 주는 기업 될 것”

미디어데이 ‘NEXT ON’

유저에 혁신적 게임서비스 제공
장르·IP연구로 글로벌 게임사 도약
지스타 출품작 5종 세부정보 공개

넥슨은 30일 넥슨사옥에서 미디어데이 ‘NEXT ON’을 개최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미래 비전과 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넥스코리아 김정욱·강대현 공동대표는 넥슨의 3대 가치를 통한 기업 경영 가치관을 소개하고, 핵심 강점의 극대화를 통한 IP 파이프라인 강화 및 글로벌 확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위해 긍정적인 영향력 제시

김정욱 대표는 넥슨이 지난 30년간 축적한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내다보는 경영 가치관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사회, IP 등 넥슨이 보유한 주요 3대 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넥슨의 도약을 위한



미디어데이 ‘NEXT ON’ 넥스코리아 김정욱 대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넥슨

두 가지 기업 목표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임을 만드는 기업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랑받는 기업을 제시했다.

넥슨은 뛰어난 게임 개발력과 서비스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내며 강력한 입

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을 통한 고용 창출, 지식 공유 콘퍼런스 ‘NDC’를 통한 업계 동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더불어 출범 7년차를 맞이한 넥슨재단을 통해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 및 다양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IT 교육 격차 해소, 미래 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정욱 대표는 “앞으로도 넥슨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가며, 업계를 선도하는 넥슨다운 게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진화 전략 제시

강대현 대표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게임 개발력과 서비스 역량을 통해 완성된 넥슨만의 핵심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넥슨 생태계 안에서 유저가 더 오래 머물고, 지속적으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강대현 대표는 유저의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로 강점의 극대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와, 도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4가지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IP 파워 및 프랜차이즈 강화 ▲라이브 역량이 갖는 퍼블리싱 강화 ▲빅엔트리 프로세스의 본격적 도전 ▲글로벌 영향력 강화 및 경험에 기반한 신규 IP 도전 등이다.

강 대표는 “넥슨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역량을 강점으로 더욱 세밀하게 가공하고, 이를 통해 유저들에게 혁신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며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 다채로운 IP 연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스타에 게임 5종 공개… 시연기도 500대 설치

한편, 넥슨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에 선보일 출품작 5종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넥슨은 내달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되는 지스타 2024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고 B2C 최대 300부스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넥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지스타 2024 부스는 ‘넥슨의 도약’의 미를 담아 솟아오르는 스피어를 표현한 초대형 LED 스크린과, 유저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연작 4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3D 액션 RPG ‘프로젝트 오버킬’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까지 500여대의 시연 기기를 설치해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 기간 동안 시연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넥슨 지스타 2024 행사 총괄을 맡은 최성욱 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은 “지스타 2024 넥슨관은 유저들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넥슨의 역사를 추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서정진, 美 의료진에 ‘짐펜트라’ 경쟁력 알려

〈셀트리온그룹 회장〉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美 소화기학회 직접 참여·소통
글로벌 3상 장기사후분석 결과 공개
라인업 구축 통해 글로벌 점유율 확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사진)이 미국 학회에서 전 세계 핵심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경쟁력을 직접 알렸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맞춤형 처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25일(현지시간)부터 27일간 열린 ‘2024 미국 소화기학회(ACG)’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CT-P13SC)’의 글로벌 3상 장기사후분석 결과를 구두 발표로 처음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서정진 회장은 학회에 직접 참석해 전세계 소화기 질환 핵심 의사들



과 직접 소통하고 짐펜트라를 비롯한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치료 효능과 경쟁력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ACG는 9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 소화기 관련 주요 학회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소화기 질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와 임상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렸다.

이번 학회를 통해 발표된 임상 결과는 2년(102주) 동안의 장기 추적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CT-P13SC 단독 투여군과 면역억제제 병용 투여군의 차이를 분석해 유효성 및 안전성, 면역원성을 비교한 결과다.

해당 발표는 192명의 크론병(CD) 환

자와 237명의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를 대상으로 54주차부터 102주차까지 CT-P13SC 단독투여와 면역억제제 병용투여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양군 간 유효성과 안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면역원성 측면에서도 단독투여가 면역억제제 병용투여와 비교해 항약물 항체(ADA) 전환율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서 회장은 탄탄한 자가면역질환 제품 라인업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와 점유율 확대에 속력을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전문 의료진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맞춤형 처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정관장 “홍삼, 혈당 조절에 도움 줄 수 있어”

‘지엘프로 코어·더블컷’ 2종 출시

정관장이 국내 처음으로 홍삼이 가진 혈당 조절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혈당 관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정관장은 혈당 케어 건강기능식품 ‘지엘프로(GLPro) 코어’와 ‘GLPro 더블컷’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GLPro 코어와 GLPro 더블컷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공식 인정 받은 정관장 홍삼(KGC05pg)을 주원료로 한다.

KGC인삼공사는 기존 기능성 원료와 다르게 홍삼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감소, 그리고 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련 호르몬(GLP-1) 증가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및 당대사 조절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혈당을 조절

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GLPro 코어는 홍삼에 바나바잎추출물과 여주농축액 등 부원료를 배합해 혈당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특히 식약처 섭취 안전성 확인으로 부작용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당류 0g 설계로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GLPro 더블컷은 평소 식사량이 많고 뱃살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혈당부터 체지방까지 건강밸런스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인 남녀 대상 인체시험 결과 내장지방 20% 유의적 감소를 확인한 기능성 원료 레몬바추출물혼합분말까지 함유되어 있어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체지방, 내장지방까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LF

에코 퍼·비전 소재

친환경 제품군 강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생활문화기업 LF의 프랑스 패션 브랜드 ‘바쉬’가 이번 가을·겨울 시즌 에코 퍼(Eco Fur) 아우터 물량을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코 퍼는 인조 소재로 만든 모피로, 부드러운 촉감과 결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비건 재료는 스웨이드 가죽 소재에도 활용된다. 최근 LF의 영 컨템포러리 여성복 브랜드 ‘엡코너’와 밀레니얼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는 비건 스웨이드 재킷을 출시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루사 주성분 UDCA, 코로나19 예방 효과

〈우루소데옥시콜산〉

중증 위험도 33% 낮춰

우루사 등 간 기능 개선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산)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입증한 국내 연구 결과가 SCI급 학술지에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백양현 교수와 문상이 교수,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손민국 교수 연구팀은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중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UDCA 복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 학술지 ‘바이러스학

저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UDCA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도 진행의 연관성을 확인한 두 번째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UDCA 복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중증도 진행 위험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UDCA를 복용한 만성 간질환 환자는 비복용군 대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 심폐소생술, 체외막산소요법 및 중환자실 입원 등을 포함하는 중증 코로나19 위험도도 UDCA 복용군이 비복용군 대비 33% 낮았다.

/이세경 기자

LG생건 ‘아우라’, 향기 강화 섬유유연제

건조기 사용 후 잔향 3배 개선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섬유유연제 브랜드 ‘아우라’에서 퍼퓸캡슐을 강화해 건조기 사용 후 잔향이 진해진 초고농축 ‘아우라 퍼퓸캡슐 섬유유연제’ 4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아우라 퍼퓸캡슐 섬유유연제는 일반 섬유유연제 대비 향기 성분이 3.3배 추가된 제품이다. 특히 아우라만의 전문 조향 기술을 적용해 퍼퓸캡슐 함량을 2배 늘렸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건조기 사용 후 남는 잔향이 3배까지 개선된 것이다. 퍼퓸캡슐은 고열로 인해 날아갈 수 있는 향기 성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LG생활건강이 ‘아우라 퍼퓸캡슐 섬유유연제’ 4종과 같은 향 섬유탈취제를 출시해 하루 종일 향수를 뿌린 듯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LG생활건강

이번 신제품은 ‘양재동꽃시장’, ‘스윗만다린’, ‘미스틱문라이즈’, ‘베이비머스크’ 등 4종류로 구성됐고, 각각의 향과 같은 향을 지닌 ‘아우라 퍼퓸 섬유탈취제’도 함께 나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